

# 잠재된 기억인가, 우연한 발견인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발상**  
이리스 되링·미텔슈트라스 지음  
김현정 옮김

“영감이 없는 삶은 서류철 속에 갇힌 종이 다발과 다를 바 없어요.”  
번뜩이는 착상이나 기발한 생각이 없는 삶을 상상해본 적 있는가? 아마 지루하다 못해 삭막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공허하고 무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어떻게 영감을 얻을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발전될까?  
인간의 뇌는 매일매일 수만 개의 기억을 머릿속에 저장한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인지한 것만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은 수만 중에 모티브를 얻기도 한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부지불식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잠을 자고 난 뒤 또는 휴식을 취하고 난 뒤 풀지 못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때도 있다. ‘멍 때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풀가동된다’는 말은 그것과 무관치 않다. 번뜩이는 깨달음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잠재된 기억인지 우연한 발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스치는 생각이 강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모종의 메카니즘이 작동한 결과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왕관

사소한 생각이 기발한 영감으로

모든 역사적 창작물 탄생시킨

발상에 관한 심리 과학적 탐구

재질이 진짜 순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유레카’는 순간의 깨달음이지만 사실은 주변의 요소들이 기억과 만나 태어난 결과다.

구두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루부탱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한 마네킹을 관찰하다가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오늘날 크리스티앙 루부탱 브랜드의 특징인 빨간색 밑창은 그렇게 마네킹 매니큐어에서 비롯됐다.

역사적 창작물을 잉태한 발상에 관한 것을 다룬 책이 발견됐다.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디자이너인 이리스 되링과 저널리스트인 베티나 미텔슈트라스가 이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들이 펴낸 ‘발상’은 사소한 생각이 어떻게 기발한 영감으로 변환되는지를 추적한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과학과 교수는 이 책을 “물임과 명 때리기를 반복하며 뮤즈가 오길 날마다 기다리는, 창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세상의 모든 이에게” 추천한다.

오늘날 창의적인 발상, 다시 말해 영감은 어느 분야든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영감이 떠올랐다는 것은 ‘자동 진행 프로그램’이 작동해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뜻이다. 그러나 이 영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무(無)의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기억을 보존하려고 조언한다. 특정한 순간이 내면화되면 영감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발견은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같은 상황은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영감의 소스를 얻기 위해서는 뇌의 필터링을 극복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일상의 많은 기억은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만, 관찰과 집중을 매개로 인지한 어떤 것은 후일 영감의 불씨가 된다. ‘관찰’과 ‘인지’와 아울러 ‘공상’이라는 자유로운 상상도 발상의 토대가 된다. 저자들은 “생각의 상호작용은 자극과 관찰, 경험을 새로운 연관 관계로 구성하여 아이디어와 인식을 발전시키고 발상을 일으키기 위한 토대”라고 규정한다.

기다림도 영감을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우스의 고독한 방랑, 마르셀 프루스트의 사람들에 대한 관찰은 기다림의 좋은 예이다. 방랑과 지루함으로 대변되는 기다림이 있어 이들은 문학사에 빛나는 작품을 쓸 수 있었다.

다림처럼 기다림처럼 바쁜 일상이지만, 역설적으로 발상과 영감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책을 읽고 나면 저자들의 주장이 철학자 에두아르트 폰 하르트만의 말과 동일한 맥락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천재적인 구상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잉태되듯 탄생한다. 억지로 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찾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전혀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난다. 여행 중에, 극장에서, 대화 도중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항상 순간적으로 갑자기 나타난다.”

〈유문화사·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좋은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순간을 내면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리처드 플래너건 지음·김승욱 옮김 ‘**만 북으로 가는 좁은 길**’

리처드 플래너건은 현대 영문학사의 지형도를 바꾼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작가로 꼽힌다. 그가 12년간 집필에 매달려 완성한 장편 소설 ‘만 북으로 가는 길’이 출간됐다. 소설은 2014년 맨부커상 수상작으로 “몇 해간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맨부커상을 받았지만, 올해 수상작은 그야말로 결자이다. 이 작품은 세계문학의 카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라는 찬사를 받았다.



2014년 ‘올해 최고의 책’으로 뉴욕타임스와 미국공영방송 라디오에서 선정됐던 ‘만 북으로 가는 길’은 2차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장편소설이다. 일본군의 태극-미얀마 간 철도건설 현장에서 살아남은 전쟁포로지만 화려한 전쟁영웅으로 부활한 의과 의사 도리고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의과 의사 도리고 에번스는 젊은 날 전쟁터로 출정 하기 전 우연히 만난 자신의 젊은 숙모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나눈다. 이후 철도건설 현장의 일본군 전쟁포로 불참해 잔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소설은 전쟁의 아슬아슬한 생사의 선과 헛바퀴처럼 굴러가는 전후 일상이 서로 대비되며 전개된다. 이 두 세계를 가로지르는 주인공의 어두운 무의식을 드러내듯 환한 빛이 비추는 것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해준 삼촌의 아내 메이미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찰나기 퍼뜨린 삶의 빛이다.

특히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작가가 묘사하는 전후 생존자들의 삶이다. 여기에는 일본군 밑에서 살아남으려 애들바들했던 조선인 인물 최상민도 있다.

〈문학동네·1만5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유형원 지음·임형택 외 편역 ‘**반계유고**’

반계 유형원(1622~1673)은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조선 중기 실학자들보다 앞서 적폐를 청산하고 왕조 일신 해법을 제시한 인물이다. 유형원은 1930년대 국학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다. 안재홍은 그를 ‘조선학의 창시자’라 했고 정인보는 ‘실학의 1배’로 일컬으며 그가 조선 중기 학자들에게 남긴 영향력을 설명했다.



유형원의 내면 세계와 사상의 깊이를 전해주는 문집 ‘반계유고’가 출간됐다. 반계의 문집을 복원하기 위해 40년 가까이 자료 발굴에 힘을 쏟은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그가 이끄는 익선재 강독회 연구원들과 함께 번역에 공을 들였다.

일찍이 성호 이익은 반계 유형원을 알고자 한다면 ‘반계수록’에 더해 그의 문집을 꼭 읽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계수록’에 더해 이번에 출간된 ‘반계유고’는 실학의 첫출발 당시 조선 지식인의 시대인식과 시대정신을 생생하게 복원하고 있다.

‘반계유고’는 전체를 3부로 편성해 유형원이 남긴 시문을 한데 묶었다. 1부는 시 작품으로 반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자아의 독백을 들을 수 있다. 2부는 산문으로 ‘반계수록’을 저술한 취지 및 자신의 철학담론과 역사담론을 토론했던 내용이다. 3부는 반계와 ‘반계수록’에 관해 후인들이 기록하고 논평한 다양한 글들이 집합돼 있다.

이번 번역본의 특징은 모두 한문 글쓰기의 형식을 취해 역주 작업을 통해 일반 독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원문 또한 전문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후세에 전한다는 취지에서 일괄해 뒤에 붙였다.

〈창비·3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왕이자 지음·심규호 옮김 ‘**노자와 인생이라는 바둑을 두다**’

기존에 출간된 대부분의 ‘도덕경’은 노자의 목소리, 즉 원전에 충실한 전문가의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노자와 인생이라는 바둑을 두다’는 기존의 해석서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간다. 대만을 대표하는 인문학 저술가인 저자 ‘왕이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노자의 철학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자기 자신과 우리에게 동시에 던진다. 그는 현대인들의 고뇌와 욕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중국의 경전에서 찾는 탁월한 재기를 기초로 현대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집필했다. 원전 해석에만 치우친 ‘설명’의 어조가 아니라 보통 사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바탕으로 한 ‘융합의 어조’를 사용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두 가지의 ‘뒤집기’를 선보인다. 하나는 노자의 관점 일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에 대한 노자의 관점이라든지 유가에 대한 비판, 논술 시점 당시의 선택적 인지 문제, 그리고 ‘생각 변화’로 ‘현상 변화’를 대체하는 적합성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주로 관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사람이나 사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도덕경’의 내용에 대한 뒤집기이다. 저자 역시 세속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문제에 흥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매 국마다 여러 인물, 예를 들어 유방, 소동파, 중국변, 니체, 아인슈타인 등을 거론했으며 생태계의 균형 문제, 중국과 대만의 관계 등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였다.

〈라오의·1만4000원〉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